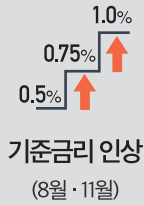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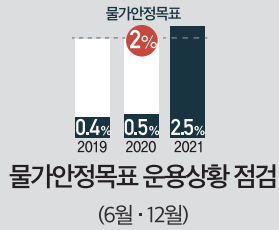

II

업무 현황

| | |
|--------------|----|
| 1. 중기전략 | 27 |
| 2. 통화신용정책 | 28 |
| 3. 금융안정 | 36 |
| 4. 발권 | 45 |
| 5. 지급결제 | 50 |
| 6. 외환 및 국제협력 | 56 |
| 7. 조사통계 | 66 |
| 8. 국고 및 증권 | 74 |
| 9. 대외 커뮤니케이션 | 79 |

2021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수행



금융안정 책무 수행 및 장기 정책 이슈 대비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금융안정점검회의 개최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외환시장 안정
미 연준과 FIMA Repo Facility 이용 합의
한·미 통화스왑(600억 달러)
연장(6월) 및 종료(12월)

비상대응체제 가동
미 연준 통화정책정상화 추진,
중국 헝다그룹 채무불이행 사태 등에
대비하여 통화금융대책반회의 등 개최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수립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진행,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법적 이슈 조사 등

조사연구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및 위기 이후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대국민 비대면 소통 활성화
소셜미디어 활성화
온라인 화폐 박물관 개설

BIS 이사국 활동 등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 적극 참여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주관 등

6. 외환 및 국제협력

가. 외국환

외환시장 안정 및 선진화 노력

2021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이 원/달러 환율 등 국내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에는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실시하였다. 또한 2020년 4/4분기부터 2021년 3/4분기까지의 분기별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였다.

표 II - 15.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¹⁾

(억 달러)

| 단계 | 시기 | 금액 |
|--------------|-----------|--------|
| 1단계 (반기별) | 18년 하반기 | -1.87 |
| | 19년 상반기 | -38.00 |
| 2단계 (분기별) | 19년 3/4분기 | -28.70 |
| | 19년 4/4분기 | 0.00 |
| | 20년 1/4분기 | -58.51 |
| | 20년 2/4분기 | -3.45 |
| | 20년 3/4분기 | 0.00 |
| | 20년 4/4분기 | 115.43 |
| | 21년 1/4분기 | -1.03 |
| | 21년 2/4분기 | 0.00 |
| | 21년 3/4분기 | -71.42 |

주: 1) 한국은행은 2018년 5월 정부와 함께 마련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시장안정화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는 반기별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2단계로 20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 내역을 각각 공개).

자료: 한국은행

또한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먼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¹⁰⁸⁾를 활용한 대고객 시장 전자거래 도입¹⁰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외환시장 협의회를 통해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2021년 12월)」을 개정하였다. 이는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화 추세, 국내 시장참가자들의 경쟁력 및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었으며, 향후 국내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원/달러 현물환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외환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도입하였다(2021년 12월). 외환당국은 원/달러 현물환

108) 다양한 외환거래 시스템들 간 호가, 거래규모, 거래시간 등의 정보 교환 및 거래 실행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방식을 의미한다.

109) 기존에는 기업 등 고객이 은행의 대고객 딜러로부터 보이스 방식(유선, 메신저 등 이용)으로 환율 호가를 제시받고 거래하였으나, 전자거래 도입 시에는 고객이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면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2021년 12월 29일 API를 이용한 전자거래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으로 선정하여 정책자문·의견수렴 협의체 구성,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위안 직거래시장 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공제 제도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 원/위안 거래의 촉진 등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2021년 12월). 외환당국은 향후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액 산정 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할 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외환거래분야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2021년 11월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¹¹⁰⁾을 도입하여 일부 외환거래 신고 업무에 대해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편의 증진 및 신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2021년 중 외환제도의 개편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신고 예외사항의 확대, 역외금융회사 보고 주기의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¹¹¹⁾.

나. 외화자산 운용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최종 대외지급 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

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가운데 수익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2021년 말 현재 A등급 이상이 96%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불확실성 확대시 국제금융시장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위주로 운용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의 유동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통화 및 상품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규모 및 구성

2021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631억 달러로 2020년 말 대비 200억 달러 증가하였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환(유가증권, 예치금 등)이 4,383억 달러로 2020년 말 대비 82억 달러 증가한 가운데 SDR¹¹²⁾과 IMF 포지션은 각각 154억 달러, 46억 달러 수준이었다. 금은 48억 달러로 2020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 - 16.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기말 기준)

(백만 달러)

| | 2019 | 2020(A) | 2021(B) | 증감(B-A) |
|-------|---------|---------|---------|---------|
| 외환보유액 | 408,816 | 443,098 | 463,118 | 20,020 |
| 외환 | 397,876 | 430,117 | 438,319 | 8,202 |
| SDR | 3,352 | 3,371 | 15,370 | 11,999 |
| IMF | 2,793 | 4,815 | 4,635 | -180 |
| 금 | 4,795 | 4,795 | 4,795 | 0 |

자료: 한국은행

110) 온라인 외환신고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3>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1) 2022년 1월 3일부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국내 소송·중재에 따른 비용을 상계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역외금융회사 투자 관련 분기별 보고를 반기별 보고로 완화하는 등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보다 확대하였다.

112) IMF는 코로나 위기극복 및 글로벌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6,500억 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쿼타(1.8%)에 해당하는 약 117억 달러를 배분받았다(2021년 8월 23일).

외화자산 구분 운용

한국은행은 운용목적에 따라 외화자산을 현금성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의 경우 운용방식에 따라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현금성자산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외화자금의 유출입이나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외화자금의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매각시 거래비용이 적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국채, 예치금 등의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투자자산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 수익 획득이 가능한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 주요 국제통화로 발행된 장·단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금 유출입 등으로 현금성자산의 규모가 상당폭 변동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자산과의 자금이관을 통해 자산간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위탁자산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은 채권 및 주식이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

2021년 상반기 중 국제금융시장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의한 경기회복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수요회복, 공급병목 등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및 글로벌 경제 분석을 통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외화자산 운용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반기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국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 증가 등 금리하락 요인과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 금리상승 요인이 엇갈리며 금리가 등락을 보이는 등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으며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흐름에 맞추어 자산배분을 조정하며 외화자산을 운용하였다.

외화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유동성 확충을 위한 현금성자산의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주요국 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산 내에서 직접투자자산 비중은 축소된 반면 위탁자산 비중은 확대되었다. 2021년 말 기준 한국은행 외화자산 중 현금성자산은 5.2%, 직접투자자산은 72.0%, 위탁자산은 22.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통화별로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미 연준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 강화 등으로 미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미달러화의 비중을 전년에 비해 확대하였다.

상품별로는 예치금 비중과 유가증권 중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채의 비중을 소폭 축소하였다. 반면 기업실적 호조, 견조한 경제지표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을 반영하여 주식 비중을 확대하였다.

표 II - 17. 외화자산¹⁾ 구성 내역 (기말 기준)

(%, %p)

| | 2019 | 2020(A) | 2021(B) | 증감(B-A) |
|---------------|-------|---------|---------|---------|
| 1. 자산별 | | | | |
| 현금성자산 | 4.6 | 5.1 | 5.2 | 0.1 |
| 투자자산 | | | | |
| 직접투자자산 | 74.6 | 73.9 | 72.0 | -1.9 |
| 위탁자산 | 20.8 | 21.0 | 22.8 | 1.8 |
| 2. 통화별 | | | | |
| 미달러화 | 69.1 | 67.7 | 68.3 | 0.6 |
| 기타통화 | 30.9 | 32.3 | 31.7 | -0.6 |
| 3. 상품별 | | | | |
| 예치금 | 5.0 | 7.1 | 6.9 | -0.2 |
| 유가증권 | | | | |
| 정부채 | 44.6 | 44.5 | 44.9 | 0.4 |
| 정부기관채 | 15.8 | 14.4 | 14.1 | -0.3 |
| 회사채 | 13.4 | 13.6 | 12.9 | -0.7 |
| 자산유동화채 | 12.5 | 11.5 | 10.8 | -0.7 |
| 주식 | 8.7 | 8.9 | 10.4 | 1.5 |
| 계 | 100.0 | 100.0 | 100.0 | - |

주: 1) <표 II - 16>의 외환 중 한국은행 외화자산
자료: 한국은행

외화자산 수익성 제고 및 운용체계 개선 노력 지속

한국은행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외화자산 운용수익률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채 비중을 확대하고 금리·환율 등 시장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헤지 전략을 통해 성과를 개선하는 등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외화자산 통화구성 모형 점검,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자산간 리밸런싱 제도 도입, 회사채 ETF와 같은 신상품 도입 검토 등 현행 자산배분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외화자산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외화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팬데믹 상황 지속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외화자산 운용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예상 시나리오별 외화자산 리스크 관리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투자여건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화자산 운용체계상 위기 대응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외화자산 운용 관련 담보관리 대상거래를 확대하여 신용위험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리스크 한도 및 지표 관리의 전산화 등을 통해 운용 및 리스크 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시장 및 신용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였으며 자금결제 및 회계업무 비상계획 정비 등을 통해 결제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다.

국내 금융사 역량 제고 및 금융산업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 거래기관 및 위탁운용사로 국내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사의 역량 제고 및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중 외화자산 직접운용 과정에서 5개 국내 증권사와 외화채권 매매거래를 실시하였으며, 4개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5.9억 달러) 및 선진국 주식(15.6억 달러) 일부를 위탁운용하였다.

표 II - 18. 외화자산 운용 시 국내 금융기관 활용 현황

| 유형 | 상품 | 대상기관 ¹⁾ | 규모 | 개시시기 |
|------------|-----------------|--------------------|------------------------|----------|
| 외화채권의 매매거래 |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 증권사 (5) | 37.0억 달러 ²⁾ | 2018년 1월 |
| 주식의 위탁운용 | 중국 주식 | 자산운용사 (3) | 5.9억 달러 ³⁾ | 2012년 6월 |
| | 선진국 주식 | 자산운용사 (3) | 15.6억 달러 ³⁾ | 2019년 4월 |

주: 1) () 내는 거래기관 수

2) 2021년 중 거래금액 기준

3) 위탁원금 기준

자료: 한국은행

향후에도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운용 역량 축적 상황 등을 보아가며 위탁규모 및 위탁기관 풀 등을 확대하는 한편, 운용자산 범위 확대, 전략의 다양화 도모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을 꾸준히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SG 운용 기본방향 수립 및 투자 확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공적 책임성 요구에 부응하고 외화자산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2월 위탁운용을 통한 ESG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후 점진적으로 ESG 투자¹¹³⁾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1년 중에는 외화자산의 ESG 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공표하여 외화자산 다변화 차원에서 ESG 상품에 투자하는 현행 단계에서 향후 외화자산 전체에 ESG 요소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단계로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2021년 말 기준 ESG 관련 자산규모는 직접 투자자산에서 그린본드 등 ESG 관련 채권이 58.2억 달러, 위탁자산에서 ESG 요소를 적용한 주식·채권 펀드 규모가 32.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표 II - 19. ESG 관련 자산 투자 현황 (기말 기준)

(억 달러)

| 운용 | 상품 | 규모 ²⁾ | | |
|------------------|----|------------------|---------|---------|
| | | 2020(A) | 2021(B) | 증감(B-A) |
| 직접 | 채권 | 34.9 | 58.2 | 23.3 |
| 위탁 ¹⁾ | 주식 | 10.8 | 17.9 | 7.1 |
| | 채권 | 8.9 | 14.1 | 5.2 |
| 합계 | | 54.5 | 90.2 | 35.7 |

주: 1) ESG 요소 적용 펀드 기준

2) 시가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 외화자산 운용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였다.

역내 중앙은행들의 친환경 금융투자 지원을 위해 출시되는 BIS 아시아 그린본드 펀드에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World Bank로부터 중앙은행의 ESG 운용현황 및 적용방안 관련 자문을 받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하였다.

이밖에도 독일재무관리청, 호주재무관리청 등과 화상회의를 통해 전세계 외환보유액 운용의 최근 흐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콜롬비아 중앙은행, 케냐 중앙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경험을 전수하였다.

다.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글로벌 협력채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경제상황

113) 투자자의 결정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 또한 고려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및 주요국의 정책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위기, 금융디지털화 확대, 기후변화 가속화 등으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진 여건에 맞추어 다자 간 및 양자 간 국제협력·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갔다.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

한국은행은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정책공조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6회) 및 IMF·세계은행 회의(2회)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 및 세계경제 전망 등 금융경제 현안과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이 국제금융계 차원의 정책공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BIS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BIS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BIS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 등의 결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요국의 경제·금융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공조·조율을 강화할 수 있었다.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4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7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저소득국 부채상환유예 방안 및 향후 부채대응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금융규제·감독, 금융포용, 스테이블 코인 등 금융부문 이슈, 양질의 인프라 투자원칙, 디지털화에 따른 국제조세 과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표 II - 20.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21년 중)

| 회의명 | 주요 의제 |
|---|--|
|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 (1·3·5·6·9·11월 화상회의) | 통화·재정 정책 간 상호작용, 통화정책 정상화, 빅테크 및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시스템 진입, 병목 현상, 기후변화 등 |
| IMF·세계은행 회의 (4월 화상회의, 10월 워싱턴 D.C.) | 세계경제 전망, 세계 금융안정 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과제, IMF·WB의 회원국 지원 방안 등 |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2·4월 화상회의, 7월 베니스, 10월 워싱턴 D.C.) | 코로나19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부채상환유예 방안 및 향후 부채대응 체계,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금융규제 및 감독, 금융포용, 스테이블 코인, 양질의 인프라 투자, 국제조세, 기후변화 대응 등 |

자료: 한국은행

역내 금융협력관계 강화

한국은행은 ASEAN+3, EMEAP, SEACEN 등 아태지역 협의체에서의 금융·경제현안 논의는 물론 산하 실무그룹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역내 회원국 간 금융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ASEAN+3에서는 2021년도 금융협력회의 공동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정부와 공동으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1회)¹¹⁴⁾,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2회) 및 실무 회의(5회)를 주관하여 LIBOR를 대체하는 CMIM 신규 참조금리 결정 및 역내통화 자금지원 제도화 관련 운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EMEAP 총재 회의(1회) 및 총재·금융감독기관장 회의(1회)와 SEACEN 총재 회의(1회)에 참석하여 최근 경제금융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감독, 금융시스템 디지털화 등 최신 현안에 대해서도 당행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SEACEN의

114) 코로나19 지속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매년 ASEAN 10개국 중 1개국과 한·중·일 3개국 중 1개국이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공동의장국을 수임하였다.

EXCO (Executive Committee) 자문위원회¹¹⁵⁾ 위원으로서 SEACEN 센터의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표 II - 21. 역내 국제회의 주요 논의 내용 (2021년 중)

| 회의명 | 주요 의제 |
|--|---|
| 제24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화상회의) | 역내 및 세계 경제·금융 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 |
|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화상회의) | 각국 및 세계 경제·금융 동향, 역내 금융협력 등 |
| 제26차 EMEAP 총재 회의 (8월, 화상회의) | 최근 경제금융 동향, 위기 및 경제 회복기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등 |
| 제10차 EMEAP 총재/금융감독기관장 회의 (7월, 화상회의) | 은행부문 신용공급,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감독 등 |
| 제57차 SEACEN 총재 회의 (12월, 화상회의) | 금융시스템 디지털화의 중앙은행에 대한 시사점 등 |

자료: 한국은행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정책경험 공유 확대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외환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와 관련된 정책경험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금융발전 및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먼저 지식교류프로그램(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¹¹⁶⁾은 수요 맞춤형 연수 실시, 소그룹 화상회의 활성화, 중앙은행 고위 인사와의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대면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문 및 기술지원의 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북방국가를 지식교류프로그램에 추

가하여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대내외 위기 대응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표 II - 22. 지식교류프로그램(KPP) 실적 (2021년 중)

| 협력대상국 | 사업과제 |
|--------|----------------------------------|
| 베트남 | 지급시스템 감시능력 강화방안 |
| 캄보디아 |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시장불안시 대응 방안 |
| 몽골 | 중앙집중형 빅데이터 처리 및 통합시스템 구현 방안 |
| 네팔 |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스템 개선방안 |
| 스리랑카 | 효과적인 외환정책 운영방안 |
| 우즈베키스탄 |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의 통화정책 |
| 카자흐스탄 | 금융안정 평가 및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석기법 개발 |
| 키르기스스탄 | 공급교란 및 외부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 전략 |

자료: 한국은행

한편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차 북방포럼(2021년 11월)」에서 5개 국가¹¹⁷⁾와 「중앙은행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북방국가 중앙은행과의 교류협력 채널을 확충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Central Banking Study Program)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외화자산 운용, 지급결제, 내부경영, 금융안정 등 4개 분야에 걸친 한국은행의 경험을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직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27개국 228명이 참여하여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115) SEACEN 센터 소장의 조직 및 급여체계 개편 업무를 지원하고 신규 인력 채용 자문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과 스리랑카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16) 한국은행의 업무 관련 지식, 정책수령 경험, 한국의 금융시스템·인프라 발전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 중앙은행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사업을 말한다.

117)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표 II - 23.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실적 (2021년 중)

| 개최일정 | 참석인원 |
|------------------------------|----------|
| 1차 CBSP (외화자산운용, 3월 22일~23일) | 15개국 50명 |
| 2차 CBSP (지급결제, 6월 14일~15일) | 13개국 51명 |
| 3차 CBSP (내부경영, 9월 27일~29일) | 13개국 66명 |
| 4차 CBSP (금융안정, 10월 18일~20일) | 18개국 61명 |

주: () 내는 주제 및 일정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확대

한국은행은 2021년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또는 협의체에 출자금 3억 1,565만 달러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제19차 재원보충,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가입 관련 출자,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African Development Fund) 재원보충 등으로 출자금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출자·출연 규모는 총 175억 달러에 이른다.

표 II - 24.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백만 달러)

| | 2020년 말(A) | 2021년 말(B) | 증감(B-A) |
|------------------|------------|------------|---------|
| 출 자 금 | 16,178 | 16,494 | 316 |
| IMF | 11,861 | 11,861 | 0 |
| IBRD | 311 | 335 | 24 |
| IDA | 2,136 | 2,296 | 160 |
| ADB | 293 | 293 | 0 |
| AfDB·AfDF | 539 | 577 | 38 |
| AfIB | 748 | 748 | 0 |
| CABEI | 34 | 96 | 62 |
| 기타 | 256 | 288 | 32 |
| 출 연 금 | 1,005 | 1,005 | 0 |
| IMF | 78 | 78 | 0 |
| IBRD | 34 | 34 | 0 |
| ADB·ADF | 671 | 671 | 0 |
| IDB·MIF | 161 | 161 | 0 |
| IIC | 40 | 40 | 0 |
| 기타 | 21 | 21 | 0 |
| 출자·출연금 합계 | 17,183 | 17,499 | 316 |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1년 말 한국은행의 IMF에 대한 용자 규모는 9억 327만 SDR이다. 이 가운데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에 따른 용자 규모는 7,865만 SDR,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PRGT,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차입약정¹¹⁸⁾에 따른 용자 규모는 8억 2,462만 SDR이다. 2021년 중 총 용자 규모는 전년대비 6,671만 SDR 감소하였는데 이는 신차입협정에 따른 용자가 6,471만 SDR,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 차입약정에 따른 용자가 200만 SDR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18) IMF가 저소득국가에 대한 양허성 용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체결하였으며 2013년 처음 용자를 실시하였다.

표 II - 25. IMF에 대한 용자 현황

(백만 SDR)

| | 2020년 말 (A) | 2021년 중 | | 2021년 말 (D=A+B-C) | 증감(D-A) |
|------|----------------|---------|-------|----------------------|---------|
| | | 용자(B) | 상환(C) | | |
| NAB | 143 | 0 | 65 | 78 | -65 |
| PRGT | 827 | 0 | 2 | 825 | -2 |
| 합계 | 970 | 0 | 67 | 903 | -67 |

자료: 한국은행

참고 II-3.

한국은행의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 BOK 2030의 목표 중 하나인 디지털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외환거래 신고의 경우 당행이 신고서 접수, 심사, 신고필증 교부 등 일련의 신고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신고서류간의 정합성 분석, 심사 진행상황 안내, 외환전산망 데이터 입력 등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이 자동화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동 시스템의 도입·운영으로 한국은행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외환심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민원인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동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민원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외환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은행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외환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림 II - 21.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외환심사 업무 변화

